

## 自我強度와 認知樣式에 따른 Rorschach 반응상의 一次過程的 思考의 표현 및 통제

신 민 섭 · 원 호 택

(서강대)

(서울대)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아강도와 장의존성-독립성에 따라 Rorschach 검사 반응상에 나타난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 및 통제 양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자아강도는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Es Scale)로, 장의존성-독립성은 숨은 그림 찾기(HFT)로 측정하였고 1차과정적 사고는 Rorschach 검사 반응을 Holt 채점체계에 입각하여 평가하였다. Es 척도와 HFT점수 상에서 상위 25%, 하위 25%에 속하는 대학 1학년 남학생 45명에게 Rorschach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變量分析(unequal unweighted mean analysis of variance)한 결과,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이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1차과정적 사고 내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게 표현하였고( $P < .01$ ), 장의존적 집단과 장독립적 집단간에는 1차과정적 사고 표현량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는 자아강도외에 장독립성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P < .01$ ). 이러한 결과는 Rorschach 자극과 같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아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장독립적인 認知樣式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 결과는 Holt의 1차과정적 사고 평가방식이 적어도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에 입각해 볼 때 構成妥當度가 있음을 시사해 주며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Freud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임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精神病理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강도외에 장의존성-독립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I. 서 론

#### 1. 문제제기

1차과정적 사고(primary process thinking)와 2차과

과정적 사고(secondary process thinking)는 Freud가 임상 관찰을 통하여 기술한 精神分析學的 개념들 가운데서 비교적 잘 알려진 개념이다.

Holt와 Harvel(1960)에 의하면 1차과정적 사고는 “성욕적이고 공격적인 충동들이나 원망들로 구성된 원초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유형”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1차과정적 사고는 성격 발달과정에서 본능적 충동들에 대한 자아의 통제력이 확립됨에 따라서 2차과정적 사고로 점진적으로 대치된다(Rivard & Dudek, 1977).

1차과정적 사고와 같은 정신역동적인 개념들은 주로 Rorschach와 같은 投射法검사를 통하여 평가되어져 왔지만 Rorschach 검사의 妥當性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Holt와 Harvel(1960)은 Rorschach 검사를 통하여 1차과정적 사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주로 임상 관찰에만 의존하였던 정신역동적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공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Rorschach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편이며 특히 Rorschach검사를 통하여 1차과정적 사고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차과정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Holt의 채점방식을 적용하여 1차과정적 사고 특성의 일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1차과정적 사고에서 2차과정적 사고로의 발달이 自我에 의해서 증재되며(Rivard & Dudek, 1977), 이는 이미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므로 1차과정적 사고를 自我強度(Ego Strength)와 연관지어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Holt의 평가방식이 1차과정적 충동의 표현량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방어의 효율성도 평가하고 있고, Rorschach 검사 자체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특성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자아강도외에 場依存性-獨立性과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 및 통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의존성-독립성은 정신역동이론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防禦機制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Witkin, 1965, 1979; Schimek, 1968), 이런 연구들은 장독립적인 사람들이 장의존적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정서유발 자극에 의해서도 적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장의존성-독립성의 인지 차원과 1차과정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개관

1) Rorschach 검사를 사용한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선행 연구 :

Rorschach검사를 사용하여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Holt등 (1960)이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1차과정적 사고 채점체계를 고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Holt 등(1960)은 Rorschach나 TAT와 같은 투사법 검사반응의 언어적 자료에서 1차과정적 사고의 22가지 徵表(sign)를 양적으로 채점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Joffe와 Peterson (1981)은 이러한 평가방식이 구성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Holt 등은 이러한 채점체계에서 1차과정적 사고의 3가지 측면 즉, 충동적인 측면, 自閉的 論理와 같은 논리적인 왜곡 측면, 그리고 神經症的이거나 精神病的인 증상을 형성하는 것과는 무관한 쾌락적이고 적응적인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1차과정적 사고의 3가지 측면에 대응하는 채점 목록을 만들었다. 첫번째 목록은 검사반응의 내용에서 충동이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는지를 채점하는 것이고, 두번째 목록은 충동지배적인 사고에 의한 논리적인 이탈 정도를 채점하는 것이고, 세번째 목록은 1차과정적 충동 내용이나 논리적 이탈에 대해서 被檢者가 행하는 방어나 통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Rorschach검사를 사용하여 자아 통제력이 미발달하였거나 자아약화시에 1차과정적 사고가 많이 나타남을 입증해준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Rorschach검사 반응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많은 발달적 연구들은 성인들에게서 병리적이라고 여겨지는 1차과정적 사고의 여러 측면들이 아동들에게서는 정상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Wulach, 1977; Rivard 등, 1977; Schimek, 1974). Rivard 등(1977)이 인용한 Safrin (1974)의 연구는 의디팔시기, 잠복기, 청소년기에 있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性欲的인 1차과정적 사고 반응은 감소하는 반면에 공격적인 1차과정적 사고 반응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1차과정적 사고 반응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약물복용을 통하여 자아 통제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킨 조건에서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해 행해진 연구들은 정상 성인들도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복용시에 높은 비율의 1차과정적 사고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West, Matindale, Hines, & Roth, 1983). 이러한 사실은 자아기능이 극심하게 약화된 精神分裂症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Zimet과 Fine (1965)는 進行-反應性 정신분열증 환자(process-reactive schizophrenics)들에게 Rorschach검사를 실시하여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량을 측정 한 결과, 진행성 정신분열증 환자가 반응성 정신분열증 환자보다 더 충동지배적인 사고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은 진행성 정신분열증 환자가 반응성 정신분열증 환자보다 자아 통제력이 더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자아 통제력이 미발달한 어린 시절이나 약물 혹은 정신병리에 의한 자아약화시에 1차과정적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해준 연구들이며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 및 그에 대한 통제가 자아강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Nunberg(1938)에 의하면 자아강도란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며, 자아약화에는 고통에 대한 과민성, 불안 경험에 대한 과도한 준비성, 죄책감을 가질 경향성, 신경증적 혹은 정신병적 증상등이 포함된다(Bellak, Hurvich, & Gediman, 1973). 그러므로 자아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는 긴장이나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약화되고 본능적인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므로 1차과정적 사고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과 통제가 자아강도와 정적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능력이 개인의 장독립적인 지 양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Schimek(1974)의 연구에 의해 보고되었다. Schimek (1974)은 Rorschach 검사를 사용하여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 및 통제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한 결과 지능, 장독립적 인지양식, 注知化 같은 방어기제가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과정적 사고의 감소와 효율적인 통제가 자아발달에 의한 충동감소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장독립적 인지양식에 의해 중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Rorschach검사가 지니는 두가지 측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Rorschach검사는 知覺

認知課題(perceptual-cognitive task)와 성격의 역동적인 측면을 나타내주는 공상을 유발시키는 자극(stimulus to fantasy), 이 두가지 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Exner, 1974).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의존적인 사람들에게서 방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Rorschach검사를 통하여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 및 통제 양상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아강도와 같은 정신역동적인 개념외에 장의존성-독립성과 같은 인지양식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 2) 장의존성-독립성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

Rorschach검사와 같이 지각 상황에서의 접근방식과 성격특성을 연결시키는 많은 연구들 중의 하나가 장의존성-독립성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인지양식과 정서, 충동, 방어기제와 같은 개인의 비인지적인 욕구상태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Witkin, 1965, 1974, 1979).

Witkin 등(1965)은 RFT(rod & frame test)나 BAT(body adjustment test), RRT(rotating room test) 등의 검사에서 피검자들이 막대나 신체를 수직으로 위치시키는 주된 參照物로 외적인 視覺場(visual field)이나 신체를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 그러한 경향성은 각 검사들에서 개인마다 모두 일관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상반되는 양 극단에 있는 경향성을 장의존성-독립성이라고 불렀다. 후에 RFT, BAT, RRT에서 주변 상황으로부터 막대나 신체를 분리된 것으로 유지시키는 과제와 복잡한 도형으로부터 단순한 도형을 찾아내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EFT(embedded figure test)가 서로 유사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지각적 분리능력을 장의존성-독립성 개념으로 다시 정의하였다(Witkin, 1979).

Witkin 등(1974)은 장의존성-독립성이 전체-모호(global-diffuse) 대 분석-명료(analytic-articulated)한 場接近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동의 Rorschach검사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실험실 검사에서 전체적인 장접근을 보이는 아동들은 자극을 비구조화되고 모호한 것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자극에 의해 당황, 혼돈, 압도된다는 결과를 얻었고, 반면에 분석적으로 장접근을 하는 아동들은 자극을 구조화된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의해 혼동되거나 압도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차과정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자극적 특성을 지닌 Rorschach검사에 대해서, 장독립적인 사람이 장의존적인 사람에 비해 그러한 자극을 구조화된 형태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서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는 점을 시사한다.

장의존적인 사람들이 장독립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실험 상황에 의해 더 영향을 받거나 정서적인 통제가 잘 안된다는 것을 입증해준 연구들은 실험조작에 의한 연구들(Silverman, Cohen, Shmavonian, & Greenberg, 1965; Newman & Hirt, 1983)과 행동관찰 및 투사법 검사에 의한 연구(Best, 1975; Swan, 1974)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의존적인 사람들이 장독립적인 사람들보다 감각박탈 상황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실험조건에서 더 자아약화를 나타내었으며 장의존적인 사람들이 아동이건 어른이건 간에 장독립적인 사람들보다 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장의존성-독립성이 감정 표현이나 행동 통제면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방어기제의 유형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Rorschach검사를 포함하는 임상적 평가(Bertini, 1965; Morrison & Centers, 1969; Schimek, 1968), 면접 및 행동관찰(Witkin 등, 1954, 1972), 실험 연구(Minard & Mooney, 1969; Witkin 등, 1965)에 의한 연구들인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독립적인 사람이 孤立化(isolation), 주지화(intellectualization)를 특징적인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반면에, 장의존적인 사람은 주로 抑壓(repression)이나 否定(denial)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장의존적인 사람이 장독립적인 사람보다 억압을 많이 사용한다는 증거는 회상(recall)과 지각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효과(Minard 등, 1969)와 꿈망각에 관한 연구(Witkin, 1965)에서 나온 것이며, 장독립적인 사람이 고립화나 주지화같은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증거는 Rorschach검사를 사용한 연구(Bertini, 1965; Schimek, 1968)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입각해서 볼 때 무의식적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속성을 지닌 Rorschach검사에 의해서 장의존적인 사람이 장독립적인 사람보다 더 정서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예상되며 장독립적인 사람이 장의존적인 사람보다 Rorschach검사상에 표현된 정서적 반응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리라 예상된다.

## 3) 이론적 배경의 종합 :

자아강도와 장의존성-독립성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Rorschach검사 반응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과 이에 대한 통제는 자아 기능의 수준과 인지양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Rorschach검사에 의해서 장의존적인 사람들이 장독립적인 사람들보다 더 정서적

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예상되므로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방어의 효율성도 더 떨어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 교육수준, 연령, 성별 등의 통제가 비교적 가능한 정상 대학생 집단에서 Rorschach검사를 사용하여 1차과정적 사고의 표현과 이에 대한 통제가 자아강도, 장의존성-독립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가설 1.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은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Rorschach 반응상에서 1차과정적 사고 내용의 표현을 적게 할 것이다.

가설 2. 장독립적인 집단에서는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이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Rorschach검사 반응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할 것이나, 장의존적인 집단에서는 장독립적인 집단에 비해 그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다.

## II. 방법 및 절차

### 1. 피험자 및 피험자 선발도구

서울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경영대, 인문대, 사범대, 의예과 1학년 전체 316명 학생들에게 장의존성-독립성을 측정하는 숨은 그림 찾기 검사(HFT)와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를 실시하여 두 검사 모두에서 각각 상위 25%, 하위 25%에 속하는 남학생 45명에게 Rorschach검사를 실시하였다.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는 MMPI 문항 중에서 추출된 68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관용(1963)이 信賴度를 검증하였고(검사-재검사 신뢰도  $r=.79$ ), 이장호와 김재환(1982)이 문항분석을 하여 정상집단과 이상집단을 변별하는 기능이 높은 42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2개 문항에 대해서만 채점을 하였다.

장의존성-독립성 집단을 선발하기 위해선 김계현(1980)이 번안하여 신뢰도를 검증한(반분 신뢰도  $r=.80$ ) HFT를 사용하였다.

###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자아강도 2(강-약) × 인지양식 2(장의존성-독립성)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從屬變因은 Holt 채점체계로 채점한 Rorschach검사 반응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사고 내용의 반응 백분율(1차과정적 사고반응수/총반응수 × 100), 방어필요성(1차과정적 반응에 대해 6점 척도로 평정한 것의 평균치), 방어 효율성(1차과정적 반응에 대해 피검자가 방어한 정도를 6

점 척도로 평정한 것의 평균치)이다.

### 3. 채점 기준

Holt의 채점체계는 1차과정적 사고의 3가지 측면에 대응하는 3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 1) 내용 변인 :

반응 내용에 표현된 충동들에 대한 채점이 포함된다. 1차과정적 사고내용은 성욕적 충동 내용, 공격적 충동 내용, 죄책감 혹은 불안 내용으로 각각 구분되며 각각의 내용은 다시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표현인가, 통제되거나 간접적인 표현인가에 따라서 수준 1, 수준 2로 구분되어 채점된다.

#### 2) 형식적 변인 :

여기에는 1차과정적 사고로 인한 반응 구조상의 논리적인 오류가 포함되며 象徴化, 자폐적 논리, 自己參照反應 등이 포함된다.

3) 1차과정적 사고 반응에 대한 통제 및 방어 효율성 평정 :

#### ○ 방어 필요성(defense demand; DD)

Rorschach 자극을 얼마나 자아에 위협적인 것으로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채점자가 피검자의 반응을 6점 척도로 평정한 것.

|                       |          |                    |           |          |                |
|-----------------------|----------|--------------------|-----------|----------|----------------|
| 방어가<br>전혀<br>필요<br>없음 | 약간<br>필요 | 어느<br>정도<br>필<br>요 | 상당히<br>필요 | 많이<br>필요 | 아주<br>많이<br>필요 |
|-----------------------|----------|--------------------|-----------|----------|----------------|

#### ○ 방어의 효율성

피검자가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여 불안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합시키는 방어의 효율성에 대해서 채점자가 6점 척도로 평정한 것.

|                  |                 |                       |                         |                 |                   |
|------------------|-----------------|-----------------------|-------------------------|-----------------|-------------------|
| 아주<br>성공적<br>인방어 | 성공적<br>인 방<br>어 | 약간<br>성공적<br>인 방<br>어 | 비교적<br>비성공적<br>인 방<br>어 | 비성공<br>적인<br>방어 | 완<br>전<br>된<br>방어 |
|------------------|-----------------|-----------------------|-------------------------|-----------------|-------------------|

## III. 결 과

Rorschach검사 반응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사고 반응 백분율에 대한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 대한 變量分析(unequal unweighted mean analysis of variance)의 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 <표 2>를 보면 1차과정적 반응 백분율에서 자아강도 변인의 주효과 ( $F(1, 41)=42.72, P<.01$ )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왔으며 장의존성-독립성 효과는 통계

〈표 1〉 Rorschach 반응상의 조건별 평균 1차과정적 반응백분율  
단위 : %

|      |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 |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  |
|------|-------------|--------------|
| 장 독립 | 17.06(9.86) | 44.23(13.77) |
| 장의존  | 25.90(8.60) | 47.61(16.75) |

( )는 표준편차

〈표 2〉 1차과정적 반응 백분율의 변량분석표

| 변 산 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자아강도(A)     | 6,680.90  | 1   | 6,680.90 | 42.75** |
| 장의존성-독립성(B) | 418.07    | 1   | 418.07   | 2.68    |
| A × B       | 83.27     | 1   | 83.27    | .53     |
| S/A B       | 6,406.98  | 41  | 156.27   |         |
| 전 체         | 13,589.22 | 44  |          |         |

\*\*p<.01

〈표 3〉 집단별 1차과정적 사고내용 반응율

단위 : %

| 자 아 강 도 | 1차과정적 사고내용 반응 |             |            | 형식적 사고 이탈반응 | 전 체   |
|---------|---------------|-------------|------------|-------------|-------|
|         | 성 욱 적         | 공 격 적       | 불안 및 정서    |             |       |
| 강       | 2.44(3.96)    | 16.06(8.30) | 1.71(2.80) | 1.26( 3.82) | 21.47 |
| 약       | 8.53(5.54)    | 21.9(11.75) | 6.23(6.28) | 9.65(14.52) | 46.41 |

( )는 표준편차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이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1차과정적 사고 내용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과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 간에 1차과정적 사고 내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어떤 충동 내용의 반응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Holt가 구분한 방식대로 성욕적 내용, 공격적 내용, 불안 및 정서 내용, 형식적 사고 이탈 내용으로 피검자들의 1차과정적 사고 반응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피검자들이 반응한 1차과정적 사고 내용의 반응 수는 총 311개였는

〈표 4〉 1차과정적 사고반응에 대한 각 조건별 방어 필요성(DD)

|      |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 |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 |
|------|-------------|-------------|
| 장 독립 | 1.57(0.75)  | 2.50(0.31)  |
| 장의존  | 2.31(0.31)  | 2.63(0.33)  |

( )는 표준편차

내 이 중에서 두 집단이 차지하는 반응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와 같은 집단간의 평균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 성욕적 내용(t=4.29, df=43, p<.005), 공격적 내용(t=1.94, df=43, p<.05), 불안 및 정서 내용(t=2.95, df=43, p<.005), 그리고 형식적 사고이탈 내용(t=2.96, df=43, p<.01)에서 모두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서는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에 비해 성욕적 내용, 불안 및 정서 내용, 형식적 사고이탈 내용을 두드러지게 많이 반응하는 반면에,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에서는 Rorschach 검사에서 표현한 1차과정적 반응의 75%가 공격적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Rorschach검사 반응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는 방어의 필요성과 방어의 효율성

〈표 5〉 방어 필요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 변 산 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자아강도(A)     | 4.38   | 1   | 4.38  | 19.64** |
| 장의존성-독립성(B) | 2.10   | 1   | 2.10  | 9.40**  |
| A × B       | .10    | 1   | .10   | 4.46*   |
| S/A B       | 9.15   | 41  | .22   |         |
| 전 체         | 16.623 |     |       |         |

\*\*p<.01, \*p<.05

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방어의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이 자료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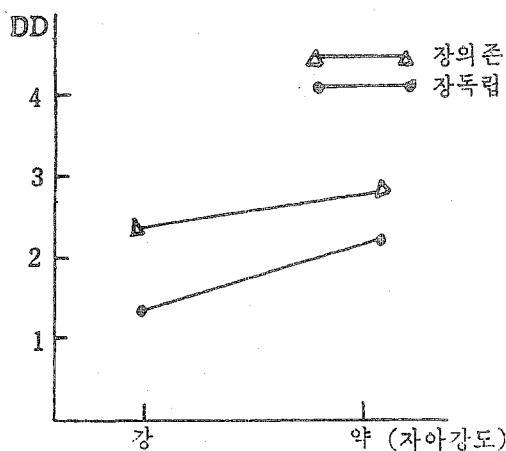
〈표 5〉를 보면 1차과정적 반응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에서는 자아강도 변인의 주효과(F(1, 41)=19.64, p<.01)와 장의존성-독립성 변인의 주효과 (F(1, 41)=9.40, p<.01), 그리고 자아강도×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 효과(F(1, 41)=4.46, p<.05)가 각각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왔다. 따라서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에서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방어를 덜 필요로 하는 1차과정적 반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장독립적

집단에서 장의존적 집단에 비해 더 방어를 적게 필요로 하는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방어 필요성에서 자아강도×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자아강도×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의 단순 주효과를 내본 결과 자아강도가 강한 조건에서 장의존성-독립성 집단( $F(1, 41)=13.77,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자아강도가 약한 조건에서는 장의존성-독립성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자아강도가 강한 조건에서 장의존적 집단과 장독립적 집단간의 차이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Rorschach검사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사고 내용의 반응에 대한 방어의 효율성에 있어서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6>에 제시되어 있고 이 자료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7>에서 볼 수 있다.

<표 7>을 보면 Rorschach검사상에 표현된 1차과정적



<그림 1> 집단별 방어 필요성

사고내용의 반응에 대한 방어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자아강도의 주효과 ( $F(1, 41)=35.62, p<.01$ )와 장의존성-독립성의 주효과 ( $F(1, 41)=17.89, p<.01$ ), 그리고 자아강도×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 효과 ( $F(1, 41)=17.75, p<.01$ )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장독립적이고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이 장독립적이고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장의존적 집단에서는 자아강도에 관계없이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해 방어의 효율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방어 효율성에서 자아강도×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단순 주효과를 내본 결과, 자아강도가 강한 조건에서는 장의존성-독립성 집단( $F(1, 41)=35.80, p<.01$ )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만 자아강도가 약한 조건에서는 장의존성-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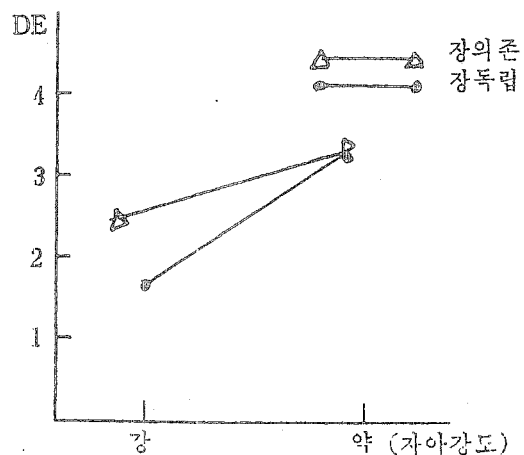
<표 6> 1차과정적 사고반응에 대한 각 조건별 방어 효율성 (DE)

|      |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 |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 |
|------|-------------|-------------|
| 장 독립 | 1.52(.83)   | 3.29(.49)   |
| 장의존  | 2.99(.46)   | 3.30(.42)   |

<표 7> 방어 효율성의 변량 분석표

| 변산원         | 자승화    | 자유도 | 평균자승화 | F       |
|-------------|--------|-----|-------|---------|
| 자아강도(A)     | 12.04  | 1   | 12.04 | 35.62** |
| 장의존성-독립성(B) | 6.05   | 1   | 6.05  | 17.89** |
| A×B         | 6.00   | 1   | 6.00  | 17.75** |
| S/A/B       | 13.86  | 41  | .34   |         |
| 전체          | 37.953 | 44  |       |         |

\*\* $p<.01$



<그림 2> 집단별 방어 효율성

성 집단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자아강도×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은 자아강도가 강한 조건에서 장의존성-독립성 집단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어 필요성과 방어 효율성에 있어서 자아강도×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주는 결과들은 본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해 준다.

#### IV. 논 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이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1차과정적 사고 반응을 적게 하였으며 장의존적, 장독립적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자아강도가 약화되었을 때 1차과정적 사고가 더 많이 나타난다

는 점을 시사하며 이것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1차과정적 사고의 반응율에 있어서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간의 차이가 어떤 총동 내용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의 평균 반응율 차이를 t-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성욕적 내용, 불안 및 정서 내용, 형식적 사고이탈 내용, 공격적 내용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간의 1차과정적 사고 내용의 평균반응율의 차이에서 성욕적 내용, 불안내용, 형식적 사고이탈 내용의 반응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자아가 약화된 노이로제 환자나 정신병 전단계의 환자에서 이런 내용의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임상관찰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 모두에서 공격적 내용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있는 소녀들에게서 성욕적 내용에 비해 공격적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함을 보이는 Safrin(197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 참가한 피검자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남학생들이었으므로 이 시기의 특성이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성별, 연령층에 대해 계속 연구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자아강도가 강한 집단이 자아강도가 약한 집단에 비해 더 감정적인 통제를 잘 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장독립적인 집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감정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방어 필요성과 방어의 효율성에 있어서 자아강도와 장의존성-독립성 상호작용에서 알 수 있다. 자아강도가 강하고 장독립적인 사람들은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킴으로써 Rorschach와 같은 정서 유발 자극에 의해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그러한 자극에 대해 감정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자아강도에 관계없이 장의존적이거나, 장의존성-독립성에 관계없이 자아강도가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극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당황하게 됨으로써 감정적 통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감정과 지각의 분리에 대한 Minard등(1969)의 연구에서 장의존적인 사람들은 정서유발 상황에서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반면에 장독립적인 사람들은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실험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며 고립화와 같은 분화된 방어기체가 장독립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Schimek, 1968; Bertini, 1965)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자아강도가 강하지만 장의존적인 사람들

은 주변의 자극으로 인해서 야기된 감정이 그들의 지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그러한 자극에 대해 감정적 통제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방어기체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Rorschach검사와 같이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효율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아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장독립적 인지양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아강도뿐만 아니라 장의존성-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온 1차과정적 사고내용을 Holt 채점체계를 사용하여 Rorschach검사를 가지고 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아강도와 장의존성-독립성과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알아 보았다. 비록 상관 연구이지만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1차과정적 사고에 대한 Freud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적어도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에 입각해서 볼 때 Holt의 1차과정적 사고 평가방식이 구성타당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강도 척도가 자기 보고형 검사인 반면에 Rorschach검사가 주로 無意識의 내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투사법 검사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둘째, 연구 결과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 피검자들이 정상 대학생 집단이었으므로 Rorschach검사에서 반응한 대부분의 1차과정적 사고 반응들이 비교적 간접적이고 사회화된 표현인 수준2 반응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정신과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준1 반응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1차과정적 사고로까지 일반화시킬 수는 없음이 시사된다. 셋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능에 대해 비교적 동질적인 비임상(nonclinical) 집단을 사용하면서 기인된 장, 단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비교적 동질적인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계현. 성·패 귀인에 나타나는 장의존성의 효과, 미 발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 이관용. 역할수행 능력에 관한 일 연구, 미 발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63.
- 이장호, 김재환. 상담효과 측정을 위한 자아강도 척도

- 개발에 관한 연구 :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를 중심으로. *임상심리학보*, 1982, 3(1), 21-33.
- Barron, F. An ego strength scale which predicts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3, 17, 327-333.
- Bellak, L., Hurvich, M., & Gediman, H.K. *Ego functions in schizophrenics, neurotics, & normals: A systematic study of conceptual, diagnostic & therapeutic aspect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 Bertini, M. Il tratto difensivo dell'isolamento nella sua determinazione dinamica strutturale. *Contributi dell'istituto di psicologia*, 1961, Serie xxv, quoted in H.A. Witkin,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and forms of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65, 70, 5, 317-336.
- Best, P.K.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in deaf.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975, 35, 4239 (A).
- Exner, J.E.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 1*.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4.
- Holt, R.R., & Havel, J. A method for assessing primary and secondary process in the Rorschach. In Maria A. Rickers-Ovsiankina (Ed.), *Rorschach psychology*. New York/London: John Wiley & Sons, 1960.
- Joffe, J.A., & Peterson, C. Cognitive style and literary regression: A Study of student writers. *Journal of Personality*, 1981, 49, 3, 338-347.
- Minard, J.G., & Mooney, W.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and perceptual defenses: Studies of the separation of perception from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69, 74, 131-139.
- Morrison, D., & Centers, L. Investigation of the convergent validity of different measures of cognitive style.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 and Personality Assessment*, 1969, 33, 168-172.
- Newman, R.S., & Hirt, M.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depression: Symptoms as a function of aggressive wishes and level of field artic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83, 92, 1, 42-48.
- Nunberg, H. Ego strength and ego weakness. In *The practice and theory of psychoanalysis*, Vol. 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1983, Quoted in Bellak, L. Hurvich, M., & Gediman H.K. *Ego functions in schizophrenics, neurotics, & normals: A systematic study of conceptual diagnostic & therapeutic aspect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 Rivard, E., & Dudek, S.Z. Primary process thinking in the same children at two developmental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7, 41, 2, 120-130.
- Safrin, R. Primary process thought in the Rorschach of girls at the oedipal, latency, & adolescent stages of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thesis, New York Univ., 1974, quoted in E. Rivard & S. Dudek, Primary process thinking in the same children at two developmental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7, 41, 2, 120-130.
- Schimek, J.K. Some developmental aspects of primary process manifestations in the Rorscha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4, 38, 226-229.
- Schimek, J.K. Cognitive style & defenses: A longitudinal study of intellectualization and field independ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68, 73, 6, 575-580.
- Silverman, A.J., Cohen, S.I., Shmavonian, B.M., & Greenberg, G. Psychophysical investigations in sensory deprivation: The body-field dimen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delphi University, 1963, quoted in H.A. Within,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 forms of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65, 70, 5, 317-336.
- Swan, G.A. Machiavellianism, impulsivity,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and performance on the prisoner's dilemma gam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974, 34, 5695B.
- West, A., Martindale, C., Hines, D., & Roth, W.T. Marijuana-induced primary process content in the TA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83, 47, 5, 466-467.
- Witkin, H.A.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and forms of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65, 70, 317-336.
- Witkin, H.A., Dyk, R.B., Faterson, H.F., Goodenough, D.R., & Karp, S.A.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Studies of development*. New York: John



- Wiley & Sons, 1974.
- Witkin, H.A., Goodenough, D.R., & Oltman, P.K.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Current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7, 1127-1145.
- Wulach, J.S. Piagetian cognitive development and primary process thinking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7, 41, 3, 230-237.
- Zimet C.N., & Fine, H.J. Primary and secondary process thinking in two types of schizophren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65, 29, 93-99.

---

The Manifestation and Control of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on the Rorschach Responses with Relation to Ego Strength (Strong-Weak) and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Min-Sup Sin, Ho-Taek W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manifestation and control of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on the Rorschach responses with relation to the ego strength and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Barron's Ego Strength Scale & HFT were used for assessing ego strength &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Holt's scoring system was applied to assess primary process thinking.

Included as the hypotheses in this study were:

1. Strong ego strength group will manifest less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contents on the Rorschach responses than weak ego strength group.
2. In field independent groups, strong ego strength group will defend more effectively to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manifested on Rorschach responses than weak ego strength group, whereas in

field dependent groups, there will be a decrease in the efficiency of defense compared to field independent groups.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es, a total of 48 male freshmen in SNU which had been in the range of upper 25% and lower 25% on the HFT (Hidden Figure Test) and Ego Strength Scale scores among 316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As three subjects were dropped out, for 45 subjects Rorschach was administered and assessed by Holt's scoring system. Due to subjects' attrition, unequal unweighted mean analysis of variance was appli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In strong ego strength group,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contents were manifested less than those of weak ego strength group ( $p < .01$ )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contents between field dependent group and field independent group.

The effective defense to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conten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ield independence as well as strong ego strength ( $p < .01$ ).

This results were viewed as suggesting that the effective defenses to the stimulus causing anxiety require strong ego strength and field independent cognitive style.

With above mentioned findings, the followings were discus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olt's scoring system of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at least have the construct validity in the light of Barron's Ego Strength Scale, and support Freud's standing of the primary process thinking.

Finally, the necessity that except ego strength,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is to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psychopathology, and the limitations in this study were discussed.